

박오아시아포럼 보고서

# 2024년 아시아 경제성장률 4.5% 예상



박오아시아포럼 국제회의중심(3월 25일 찍음) / 신화사

26일 열린 박오아시아포럼 2024년 연례회의 첫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경제 전망 및 일체화 과정 2024년 연례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2024년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4.5% 안팎에 달해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지역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양한 외부 경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경제성장률과 지역 경제 통합의 모멘텀(动能)은 여전히 강하다. 상대적으로 강한 소비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 지지하에 2024년 아시아 경제성장률은 2023년보다 높은 4.5% 좌우에 달할 전망이다. 2024년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GDP 규모 비중은 49%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면에서 2024년 전세계 취업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지만 아시아의 전체 실업률은 전세계 수준보다 낮을 것이다. 물가 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통화팽창 압력은 진일보 완화되고 일부 저통화팽창 국가의 물가도 회복될 것이다. 무역과 투자 면에서

아시아 디지털무역의 가속화, 관광업의 회복 가속화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맹국 협정)(RCEP) 등 경제무역 배치의 지속적인 추진은 새로운 동력을 더해주고 있다. 금융시장 면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및 은행업은 점차 안정될 것이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지역 일체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수치를 보면 아시아 화물무역에 대한 전세계 의존도는 38.8%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화물무역에 대한 아시아 경제체의 의존도는 57.4%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중국과 아세안의 화물무역 중심 지위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 경쟁력 우세가 뚜렷하며 기타 아태경제체에 대한 수출무역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오아시아포럼 2024년 연례회의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해남 박오에서 개최된다. 올해 연례회의의 주제는 '아시아와 세계: 공동의 도전, 공동의 책임'이다. / 신화넷

## 리훙충, 중조 우호교류 행사 참석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훙충이 26일 북경에서 중국과 조선 우호교류 행사에 참석했다.

리훙충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최근 몇년간 습근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는 여러 차례 만났고 다양한 형태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중국과 조선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중조 수교 75주년 및 '중조 우호의 해'를 계기로 량당과 량국 최고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수행하고 정당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

해 량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할 의향이 있다.

주중 조선 대사 리훙남은 조선은 조중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며 량당과 량국 관계의 더욱 큰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표시했다.

중공중앙 대외연락부와 주중 조선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중앙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및 북경 주재 조선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신화넷

## 조선: 일본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다

26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일 수뇌회담 전망에 대해 최신 담화를 발표하여 조선은 "일본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는 김여정이 최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각 관방 장관은 25일 일본측은 (일본인) 랍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조선의) 입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일본측은 또한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 및 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조선측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 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

김여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

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 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 일본 수상의 조일 수뇌회담 관련 발언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여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선은 일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결론은 일본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다."

앞서 25일, 김여정은 일본측이 조선측에 량국 수뇌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데 대해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측이 량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선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 신화넷

# 독일 기업은 왜 중국 시장을 선호하는가

## 태창에 독일 기업 500여개 입주 대 중국 투자 물결 계속돼

독일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대 중국 투자는 독일 전체 해외투자의 10.3%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독일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나 데이터에서도 독일이 대 중국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독일 기업이 중국 시장에 등지를 트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 기업의 도시'로 불리는 강소성 태창시와 베를린에서 만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다.

### ◇태창에 등지 튼 독일 기업, 발전세 눈부세

케르-리버스, 트림프(通快), 헤리온, 톱스... 많은 빠스정거장이 독일 기업의 이름을 따 명명될 만큼 태창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는 독일 기업이 많이 입주해있다.

자동차 한대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 70%를 태창에서 모두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태창에서는 '독일 제조'의 위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00여개 독일 기업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중 70%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프링(彈簧) 생산업체로 폭스바겐(大眾汽車) 공급업체중의 하나인 케르-리버스는 1993년 태창에 투자를 시작했다. 직원 6명, 400평방미터의 임대 공장에서 시작한 투자는 11차례 증자를 통해 7만평방미터의 자체 공장에서 연간 15억원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거듭났다. 케르-리버스의 글로벌 공장중 최대 규모다.

케르-리버스를 필두로 태창과 독일 기업의 협력이 줄을 이었다. 현재 500여개 독일 기업이 태창에 입주했다. "한 사람의 노력이 덧셈이라면 한 팀의 노력은 곱셈이다."는 독일의 속담은 태창과 독일의 협력 30년 발전사를 말해준다. 처음 100개 독일 기업이 태창에 자리잡는 데 14년이 소요됐지만 400번째 기업 이후 500번째 기업이 태창을 찾아가는 불과 2

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초기에 태창에 온 독일 기업중 90% 이상이 증자 및 생산 확대를 이뤘다.

태창고신기술산업개발구 유럽상인 투자기업협회 부주석 심아는 2001년부터 며칠에 한개 꼴로 태창에서 신규 독일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며 "곳곳에서 개업 테프 커팅(剪彩)식을 알리는 풍선이 알록달록 하늘에서 나뭇가지를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독일 기업중 여덟번째로 태창에 뿌리를 내린 트림프는 20여년간 발전을 거듭한 끝에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심지어 코로나 19 기간에도 중국내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중국은 독일 현지 시장을 제외한 트림프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자리잡았다.

###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대 중국 투자로 이어져

"큰 나무 아래 벽라춘(碧螺春·중국 10대 명차중 하나)을 심는다."는 속담이 있다. 현지 독일 기업 입장에서 태창은 '벽라춘'이고 상해가 바로 '큰 나무'다. 많은 독일 기업은 처음 투자를 결정할 당시 상해에 린점했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우위를 고려해 태창을 선택하게 됐다.

태창유럽상인투자기업협회 주석 장침위는 대도시보다 조용한 소도시가 제조업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독일 기업이 일부 있었다며 물류·시장·인프라 등 조건이 갖춰진 태창은 장강삼각주 도시중에서 가장 우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태창의 중심가에서 상해시 도심까지는 약 50킬로미터 남짓한 거리이다. 또 태창은 장강 컨테이너 물류의 최대 항구로 지난해 태창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800만표준컨테이너 이상을 기록했다. 화물 물동량은 2억 7,000만톤을 돌파했다.

"상해와 린점하고 항구, 공항 등 인프라가 갖춰진 태창은 리상적인 창



2023년 4월 19일, 독일 한노페르(汉诺威)공인박람회 강소성 태창시 전시구역에서 업무일군(오른쪽)이 참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신화넷

업지이다." E.G.O(益技欧) 전자부품(중국)유한회사 총경리 안드레아스 호른피셔는 태창은 로동력이 충분하고 공급망이 완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잔잔한 삶의 속도가 독일의 작은 마을을 생각나게 한다고 전했다.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가장 잘 안다." 다수의 재중 독일 기업 책임자는 지리적 우점이 '투자유치의 비결'이며 비즈니스 환경이 '인재를 머무르게 하는 예리한 무기'라고 말했다.

태창은 '독일 기업의 도시'라는 발전의 길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소비시장, 선진화되고 완비된 공급망, 낱알이 강력해지는 혁신 역량 등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뿌리내리도록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 ◇중국 경제 저력 확인, 중국 선호 계속돼

중국독일상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2024년도 비즈니스 자신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중국 시장에 계속 정착할 계획이며 절반 이상이 향후 2년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의 중요한 수익 경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일련방은행의 일부 설문조사를 인용해 독일 제조기업 거의 두곳중 한곳이 직간접적으로 중국에서 핵심 중간재를 공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오늘날 중국 경제는 세계 큰 구도에 융합될 수 있는 저력을 갖추었으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무' 여부에서 '품질' 수준으로, '양적 우위'에서 '질적 우위'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외자 기업에 있어 도전이자 기회라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최근 행보는 '중국과의 관계 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중국 시장에 '신뢰'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는 유엔의 국제표준 산업 분류에 속한 공업 업종이 전부 다 있다. 또한 중국은 1만 2,000개의 전문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이라는 '작은 거인'(小巨人)을 육성했으며 그중 90% 이상이 국내외 유명 대기업의

공급업체이다.

많은 독일 기업 대표들은 중국 시장을 기업 체질 강화를 위한 '헬스장'(健身房)으로 생각한다. 현지 기업의 고속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외자 기업이 전환·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개발 본부를 중국에 설치하고 현지화 발전을 실현하는 독일 기업이 늘고 있다.

100년 력사의 독일 대표 공작기계(机床)업체 키론(巨浪)은 2012년 태창에 투자를 시작한 후 현재 중국 사업 규모가 300% 확대됐고 공장 규모도 3배 커졌다.

키론 태창 최고기술자 빌리 리에스터는 "중국 사업을 확신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20~30%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산업망·공급망과의 분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혼자서 모든 걸 질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글로벌화는 언제나 진행형이라고 단언했다. / 신화넷



태창항 부두에서 대량의 국산 신에너지 자동차가 수출 대기중이다. (3월 19일 찍음) / 신화넷